

※국가적인 신앙회복

*느헤미야8:18

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

*구약의 절기 ⇨ 신약의 주일로 계승

(1)하나님 중심(God centered)

(2)성경중심(Bible centered)

(3)교회중심 Church centered)

〈결 론〉

말씀으로 돌아가자!

⇨ 성경으로 돌아가자!(BACK TO THE BIBLE!)

*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 ⇨ 전 세계로 확산

*1533년 존 칼빈에 의해 집약(완성) ⇨ 장로교 시작

*1560년 토마스 카트와이트 ⇨ 청교도의 전통을 세우다

*1620년 청교도 신대륙인 미대륙으로 ⇨ 한반도로

〈message〉

인간으로 돌아갈 것인가?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?

(문예부흥/ Renaissance) (종교개혁/Reformation)

OCT-06-2021

디사이플 스쿨 강의안

(Disciple School 제자학교)

▣ 디사이플 스쿨 터다지기

“우리가 이 놀라운 책(성경)을 더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, 우리는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장래도 더 밝아질 것이다”

(William McKinley 윌리엄 맥킨리, 1843~1901)

*미국 제25대 대통령

제11강

말씀으로 돌아가자!(느헤미야8:1-18)

〈도 입〉

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!

(1)바벨론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다 ⇨

(2)페르시아(바사)를 흥하게 하시다 ⇨

(3)유다백성을 귀환시키시다

①성벽,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 공급

②빠앗긴 성전의 그릇을 되돌려 받음

③대적들을 물리쳐 주심

〈본 론〉

1.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라!

*느헤미야8:1

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

*학사(the scribe 고대 유대의 율법학자)

(1)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(3절)

*느헤미야8:3
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

(2)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반응(6절)

*느헤미야8:6
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

(3)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들(7절)

*느헤미야8:7
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

*느헤미야8:8
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

2. 죄를 슬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

*느헤미야8:9
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

*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
This day is sacred to the LORD your God. Do not mourn or weep.

※나팔절,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(레위기23:24, 민수기29:1~6, 신명기12:12)

*느헤미야8:10
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삶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

※나팔절 전통

①좋은 음식 ②좋은 음료 ③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

3.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들 ⇨ 초막절을 지키다

*초막절(수장절, 칠칠절) ⇨ 추수감사절(Thanksgiving로 계승)
①올리브, 포도, 무화과 열매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
②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켰던 절기